

# 실업급여 지급액 줄었지만... 음식·숙박업 고용충격 '여전'

지난달 8개월 만에 1조원 밑돌아  
구직급여 신규 신청도 20% 줄어  
거리두기, 외국인 관광객 감소에  
대면서비스업 일자리 부진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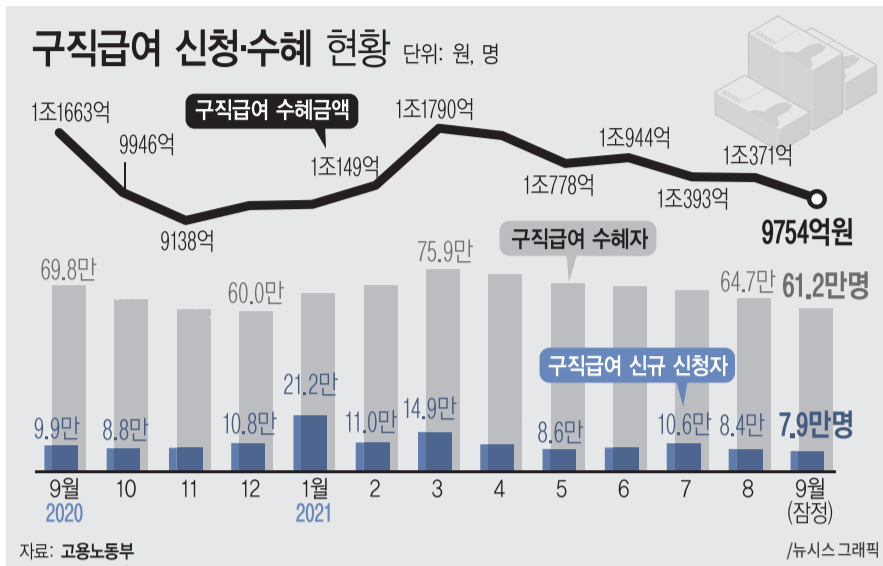
지난 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8개월 만  
에 1조원 아래로 내려갔다. 하지만 코로  
나19의 4차 재확산 영향으로 대면서비스  
업 일자리 부진은 지속돼 전체적인 고용  
개선세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.

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'9월 고용  
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'에 따르  
면 지난달 구직급여(실업급여) 지급액  
은 9754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09  
억원(-16.4%) 감소했다.

코로나19 사태로 구직급여 지급액은  
올해 2월부터 1조원대 이상을 유지해오  
다 8개월 만에 1조원을 밑돌았다.

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7만9000명으  
로 전년 동월 대비 2만명(20.4%) 감소했  
다. 구직급여를 탄 사람도 61만2000명으  
로 8만6000명(-12.3%) 줄었다.

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 
"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까지 구직



급여 수혜 기간이 끝났고, 신규 신청자  
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"라며 "전  
체 수혜자 수가 줄어들며 지급액도 1조  
원 아래로 떨어진 것"이라고 설명했다.

반면, 코로나19 장기화로 숙박음식  
업 등 대면서비스업의 고용 충격은 여  
전했다.

지난 달 취업자 수를 뜻하는 고용보  
험 가입자 수는 숙박음식업(-1만2000  
명), 운수업(-4000명) 등으로 감소세를

이어갔다.  
고용부는 거리두기 등 방역 강화, 외  
국인 관광객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분석  
했다.

천 과장은 "코로나19의 확산세는 여  
전히 지속되고 있고, 대외 경제회복 지  
연 등 불확실성이 공존하고 있어 앞으  
로 고용 상황을 더 면밀히 모니터링하  
겠다"고 말했다.

다만, 수출 호조, 내수 개선세에 힘입



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. /뉴스스

어 제조업 취업자 수는 361만명으로 전  
년보다 8만9000명 늘었다. 올해 1월 이  
후 증가 폭도 계속 커지고 있다.

9월 전체 취업자 수는 1451만8000명  
으로 전년 동월 대비 39만명 증가했다.

특히, 서비스업은 1001만5000명으로  
1년 전보다 27만명 늘었다. 서비스업 가  
입자 수가 1000만명을 넘어선 것은 고  
용보험 제도를 도입한 1995년 이후 26  
년 만에 처음이다.

출판영상통신, 교육서비스, 보건복  
지 등 대부분 서비스 업종에서 취업자

수가 늘었다. 이는 코로나19 사태 후 비  
대면 수요가 늘고, 디지털 전환 가속화,  
정부 정책지원 등의 영향이라는 게 고  
용부 설명이다.

지난 달 취업자 수는 모든 연령대에  
서 늘어났다. 특히, 취업난에 감소세를  
이어왔던 30대 취업자 수가 24개월 만  
에 증가세(2000명)로 돌아섰다.

천 과장은 "30대의 경우 숙박음식, 제  
조업 등은 감소 폭이 축소됐고, 보건복  
지 등에서 증가 폭이 확대됐다"고 설명  
했다. /세종=원승일 기자 won@metroseoul.co.kr

# 중국發 에너지쇼크에 석탄가격 '사상 최고'

## ● 차이나 뉴스&리포트

중국 석탄 생산지 홍수로 탄광 폐쇄  
석탄은 물론 유가·천연가스도 들쭉  
'글로벌 에너지 대란' 우려 목소리 ↑

중국에서 시작된 에너지 쇼크가 세계  
경제를 끌어 내리고 있다. 전력난이 미  
쳐 해소되기도 전에 중국의 주요 석탄  
생산지가 최악의 홍수로 물에 잠겼고,  
석탄 선물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

다.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도 들쭉이면  
서 글로벌 에너지 대란에 대한 우려가  
커졌다.

12일 FT중문망에 따르면 정저우 상  
품거래소에서 석탄 선물 가격은 전일  
톤당 1408.20위안(\$218.74)으로 11.6%  
급등했다. 상하이와 선전에 상장된 주  
요 광산업체를 추적하는 CSI 석탄 지수  
는 2.1% 상승했다.

석탄 가격이 급등한 것은 산시성 홍  
수때문이다. 산시성에는 지난2일부터 닷

새간 최대 2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다.  
이번 홍수로 약 12만명의 이재민이 발생  
했고, 60개의 탄광이 강제 폐쇄됐다.

중국에서 석탄의 대부분은 산시성과  
그 인근, 내몽골 지역에서 생산된다. 석  
탄 산업에 대한 반부패 캠페인과 국가  
차원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광산  
폐쇄 등도 중국의 전력난을 부추겼다.

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아시아태평양  
최고신용책임자(CCO) 마이클 테일러  
는 "전력 중단과 그에 따른 생산 차질은

일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"며 "만약 장  
기간 지속된다면 그 악영향은 중국 전  
체는 물론 세계 경제에까지 미칠 것"이  
라고 밝혔다.

이미 해외 투자은행(IB)들은 전력난  
을 이유로 중국의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 
줄줄이 하향 조정했다.

골드만삭스는 2021년 중국 경제 성  
장률 전망치를 기존 8.2%에서 7.8%로  
하향 조정했다. 전력 부족에 따른 심각  
한 산업생산 감소가 이유다.

노무라에 올해 3, 4분기 GDP 성장률  
전망치를 기존 각각 5.1%, 4.7%에서  
4.4%, 3.0%로 하향 조정했다.

FT중문망은 "지난 주말 산시성의 홍

수는 중국의 에너지 위기를 확산시키고  
경제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"며 "세계 에  
너지 시장의 혼란으로 국가들이 점점  
더 높은 비용으로 전력을 확보하기 위  
해 경쟁을 하게 될 것"이라고 지적했다.

유가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은  
모두 급등했다.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  
서 거래되는 서부텍사스산원유(WTI)  
가격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 
80달러를 넘어섰다. WTI 가격은 올해  
들어 60%가 넘게 올랐다.

천연가스의 가격도 6개월 만에 두 배  
로 뛰었고, 난방용 기름은 올해 들어  
68% 상승했다.

/안상미 기자 smahn1@

## 온·오프라인 맞춤형 개인쇼핑몰 창업

### 창업비용 99만원

나만의 맞춤형  
개인 쇼핑몰 제공 평생 수익 창출

200여개 흥삼제품  
+3만여개 인기상품  
+자체상품 등록 판매가능

25년 역사 브레인 TV 방송국소유 핫터그룹

대한흥삼주식회사/㈜핫터라이프 T.010-4480-0045

## 머크, '먹는 코로나 약' 긴급승인 신청

美 FDA에 '몰누피라비르' 신청  
임상서 사망률 절반 감소 확인

독감 치료제 '타미플루'처럼 간편히  
먹을 수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 
염증(코로나19) 치료제 출시가 임박했  
다.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는 '단계적  
일상회복(위드코로나)'을 위해 꼭 갖춰  
야할 전제 조건으로 꼽혀왔다.

12일 외신 등에 따르면 머크(MSD)  
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경구용 약  
'몰누피라비르'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 
을 미 식품의약국(FDA)에 신청했다.  
그동안 FDA의 승인을 받은 치료제는  
모두 정맥주사 형태로, 경구용 치료제  
는 몰누피라비르가 처음이다.

몰누피라비르는 경미하거나 보통 수  
준의 증세를 보이지만 중증으로 진행할  
위험이 있는 코로나19 환자들에 대한  
치료제다. 머크가 앞서 진행한 임상  
서 몰누피라비르는 코로나19로 인한 입  
원율과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으  
로 나타났다.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집

에서 간편히 복용해 증상을 완화할 수  
있다는 것 만으로도 의료 체계 부담과  
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
된다.

한 명분의 가격은 700달러 정도로,  
현재 정맥 주사제인 '렘데시비르'보다  
3분의 1 가량 저렴해 새로운 '게임 체인  
저'가 될 것이라 기대도 나온다.

FDA가 이번 긴급사용을 허가하면  
몰누피라비르는 첫 코로나19 경구용 치  
료제로 상용화된다. FDA의 결정은 몇  
주 내로 나올 것으로 보여 연내 몰누피  
라비르의 상용화가 예상된다. 머크는  
올해 말까지 1000만 명분을 생산할 계  
획이다. 미국 정부는 170만 명분에 대한  
사전구매 계약을 맺은 바 있다.

세계 각국은 이미 코로나19 경구용  
치료제에 대한 선구매 경쟁을 시작했  
다. 한국 질병관리청 역시 머크, 화이  
자, 로슈와 코로나19 치료제 구매 협상  
을 벌이고 있으며 최소 2만명분을 확보  
했다고 밝힌 바 있다.

/이세경 기자 seilee@